

“ 지도자의 바른 리더십이 그림다 ”

■ 이종윤 원로목사

<명량> 은 12일 만에 1,000만 관객 돌파라는 황당하기까지 한 대기록을 세웠다. 영화는 우리 국민이 당리당략, 사리사욕에 빠진 오늘의 지도자들 속에서 오매불망 그리워하던 참지도자의 모습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이런 흥행을 가져왔다고 본다. 한 위인에 대한 평가는 그가 살았던 삶 속에서 그 사회가 안고 있는 시대적 과제를 어떤 과정과 방법으로 해결코자 노력했는가를 보아 알 수 있다.

경(敬)의 사람

이순신은 서른 두 살의 나이에 비록 미관말직으로 시작한 군역이었지만 위로는 하늘을 이고, 장졸과 백성을 사랑하면서 희생과 섬김의 정신으로 참나(眞我)의 길을 걸었다. 그 영혼의 본적지는 바로 하늘의 마음이다. 이 마음과 합합하므로 그는 하늘이 내린 생명과 능력과 지혜로 충일해져 인류사에 다시없는 영웅이 된다. 성경이 보여준 하나님의 계시나 신탁(信託) 경험은 아닐지라도 일반은총으로 그는 하늘의 뜻을 실천한다. 그의 삶이 보여준 경건과 절제의 집중력으로 약7년 동안 쓴 「난중일기」 에서 자신의 소명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을 천명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소명을 위해 영혼을 집중시킨다. 좌우 어느 쪽으로 치우치거나 어떤 권력에도 안주하지 않고 하나의 뜻대를 향해 구도 정진하듯 나아간다. 그는 하늘이 준 소명을 붙잡고 사명을 끝까지 따라 간 지도자다. 그의 삶의 텍스트는 경(敬)과 성(誠)과 의(義)다. 그의 공명정대함은 그가 당시 참서관(시협관)이면서도 말아들 회를 몇 번이나 무과에서 낙방시킨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비전의 사람

난중일기에 무려 40회에 걸쳐 이순신은 꿈 이야기를 하면서 명량대첩 3일전(1597. 9.13) 이상한 꿈을 꾸고 전야(9.15)에는 어떤 신인(神人)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면 크게 이기고 저렇게 하면 진다고 가르쳐 주었다. 여기서 ‘신인’ 이 누구를 가리킨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지만 ‘신인’ 이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고린도에서 박해를 받던 사도 바울에게 밤에 꿈(헬라이어 ‘호라마’ 는 영어의 ‘vision’ 으로 번역됨)에 권면하신 것을(행 18:9) 연상케 한다. 이순신은 중대사가 있기 전에는 어김없이 꿈을 꾸었으며, 이 꿈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계시의 일환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기도의 사람

이순신의 마지막 전쟁이 된 노량해전 전날(1598.11.18) 자정에 배 위에 올라 손을 찢고 무릎 꿇어 “이 원수를 무찌른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도다” 라고 기도했다는 이순신의 만형의 기록에도 남아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졌다고 한다. 이순신은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하늘 뜻을 묻고 행한 이다. 올바른 기도는 자신을 전적으로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할 때만 가능한 것이다. 이순신의 23회 해전 전승의 배후에는 이 같은 기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믿음의 사람

이순신의 마지막 전쟁이 된 노량해전 전날(1598.11.18) 자정에 배 위에 올라 손을 찢고 무릎 꿇어 “이 원수를 무찌른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도다” 라고 기도했다는 이순신의 만형의 기록에도 남아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졌다고 한다. 이순신은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하늘 뜻을 묻고 행한 이다. 올바른 기도는 자신을 전적으로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할 때만 가능한 것이다. 이순신의 23회 해전 전승의 배후에는 이 같은 기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뒷면으로 계속➡


앞면에서 계속

충성의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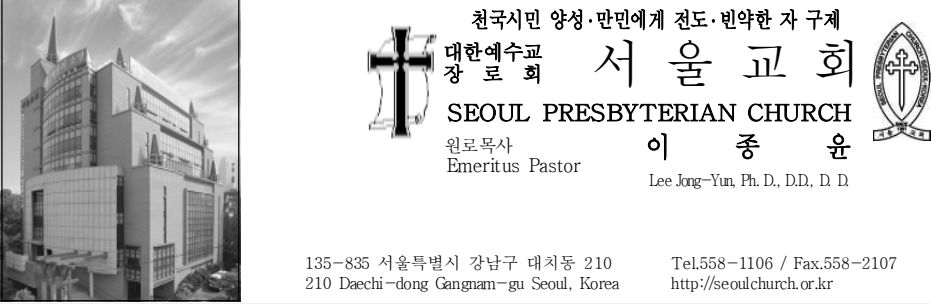
죽기까지 충성한 이순신은 양반의 기득권, 특권과 특혜, 양친 차별을 철폐하고 지도층이 백성을 총알받이로 내세우고 내뱉지만 이 나라가 어찌 양민과 종북만의 나라이라던가. 양반도 다 나와 싸우라 했다. 양극화를 하나로 만드는 공동체형 리더십을 보인다. 선조가 부산을 치라 했는데 이를 거부하고 원균은 왕명대로 출정했다가 대패했다. 오로지 나라와 백성만 생각한 이순신의 신드롬 즉 장수의 충은 백성을 향한다는 말이 이 나라 지도자에게 크게 들리지기를 바란다.

—한국장로신문 [1427호] 2014년 9월 6일에서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resider : Deacon Ki Chan Yoo]	
	[Preacher : Pastor Euichang Kim]	
* Call to Worship	John 4:24	Presider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1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Deaconess Ae Soon Jang
Hymn	25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Heb 2:14-15	Preside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Offering Hymn	5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Presider
Anthem		Congregation
Sermon	“Jesus as Baby”	Pastor
* Hymn	114	Congregation
* Benediction		Pastor
* Lord's Prayer Song	635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p>우리의 비전 (vision)</p>	<p>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p>	<p>서울교회 QR코드</p> 
	<p>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p>	
	<p>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p>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서준권	교육전도사 주원순 강남회 최근영	협동목사 김의창
교육목사 윤누가		
선 교 사 강아급주하나, 전광해(서아시아), 이은준강해정, 바렛잔(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울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병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누(인도), 정상진홍성임(필리우),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 .오정녀(캐나), 김종일.백순미(터키노동자), 훈쿠야 망 탕 쥘 코 카 마이 랑 사무알 레이 난 쌍 썬다 사우 키움 랑 호라 라비 벤 비에 마움 차 짜우 미카엘 미얀마 필리 몬, 프로산뜨, 수레시 수박스 이경엽 알로롱 비시누쁘도 보디스뜨 린툼 수란준 방글라데시, 김태식 윤왕도 노산에 이금순 김명일 김덕수(군선교)		



“ 3중 원수관계의 해답 : 주 예수님 ”

■ 창 3:15, 롬 5:12~21

우리의 삶에 걱정거리가 늘어가기만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세상적인 소식과 판단에만 귀를 기울이면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 하나님께서 만드신 3중 원수관계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들에게 오셔서 복된 소식을 주실 때, 3중 원수관계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3중 원수관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하실 때까지는 아무도 이 문제를 거론할 수 없을 것이며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그 원수관계를 푸셔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3중 원수관계란, 뱀과 여자가 관계,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관계, 마귀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아담과 하와 중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지은 이는 아담이 아니라 하와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자들이 자신을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면, 자녀를 낳고 기르는 가운데 구원함을 받을 것임이라 하십니다(딤후 2:13-15). 따라서 여자들에게는 마귀로부터 1차적인 공격을 받을 우려가 높은 존재이지만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온가족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십자가 아래서 몸을 낮추며 기도하던 이들은 대부분 여성이었습니다.

2. 뱀의 씨와 여자의 씨가 원수관계

창 3:15절의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님이 마음에 계셔서 육체의 욕심을 거부하고,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의한 신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반면 뱀의 후손은 마귀의 백성을 말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마귀 속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마귀는 진리 안에 서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않은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마귀의 후손에 속합니다. 마귀의 후손은 마귀의 배후조정에 의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회조직 또는 국가도 믿지 않는 자들의 머리 위에 군림하는 마귀는 그들 세상의 왕이고 미혹하는 영으로 그 곳에는 거짓만 있을 뿐입니다. 거짓은 진실과 절대 함께 있을 수 없으며 이는 어둠은 절대 빛과 함께 있을 수 없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베드로전서 4:11)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말도 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한 뿐이니” (고후 13:9) 라고 말씀하며 우리로 하여금 오직 진리를 위해 살라고 하십니다.

3. 전에는 이제는

성경에는 ‘전’ 에는,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놀라운 대조어가 나옵니다.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뒤를 따라다니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으나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엡 5:8).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전에는 본질적으로 마귀의 후손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상황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심하게 핍박했던 차로써, 예수를 섬기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며 죽이는 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회심함으로 이 땅에서 가장 완벽하고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범을 보인 사람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딤후 1:13).

맺는 말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마귀의 백성이었을 때 지었던 죄들과 악한 생각들에 대하여 여러 부분에서 말씀합니다(마 15:17-20, 막 7:18-23, 갈 5:19-21, 고전 6:9-10, 골 3:5-10)). 성경은 인간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하며, 부패한 실제적인 내용들을 조목조목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사악한 마음을 돌이켜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여 바른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며 결론의 말씀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을 행하므로 그들과는 절대 공존 할 수 없는 절대적인 대치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더욱 인내와 소망과 위로를 가지라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나의 이리함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는 절대로 돌아서지 않고 나는 예수그리스도를 향해서 따라 갈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며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사회와 국가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 김진섭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찬 양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조원영 목사	최광성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서준권 목사	이계홍 장로
III 오후 2시	서명철 목사	이강진 장로

오후 5시

·인도, 설교 서준권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에의 부름 Call to Worship ...요 1:12-14...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5(3).....	다 함 께
* 산양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18(구주강림 4)...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	105(105)....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창1-11, 갈1-7, 행6:18 ...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이종윤 목사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하나님의 때가 차매... (But when God's time fully come)	이종윤 목사

* 찬 송 Hymn	104(104)....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목 도	다 함 께
성 시	마 1:23 인 도 자
찬 송	122(122) 다 함 께
기 도 예완식 집사
성 경	눅 2:8-20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한밤중에 목자들" 설 교 자
특별순서 말 은 이
* 찬 송	125(125)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기 도	최종희 권사
성 경	삼상 17:12-27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다윗" 설 교 자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이경화 · 홍혜란·김양연·박수강·김복희2

설 교 조원영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minster 홀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인터넷 영상

교회소식

◆ 모임

- 새가족위원회 총회 / 24일(주) 1부 예배 후 602호
- 살림 권사회 월례회 / 24일(주) 오후3시20분 502호
- 교사총회 / 24일(주) 오후3시30분 웨스트minster홀(101호)
- 예결산 당회 / 27일(수) 오후5시 가이오실
- 특별제직회 / 31일(주) 오후3시30분 본당에서 2017년 결산 및 2018년 예산 승인을 위한 특별제직회로 모입니다.

◆ 알 림

- 101호 예배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시-10시
-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에바다부 예배: 주일 오후 1시-2시30분
- 403호 예배
영아부: 주일 오전 9시-오후6시
- 602호 예배
청년2부(다락방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3호 예배
소망부: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9호 예배
디아스포라부: 주일 오후 1시-2시
-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금주 수요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 성탄절기예배 안내 / 이번 주간은 성탄절 기간으로 모입니다.
성탄절야 예배: 24일(주) 오후5시 찬양예배 시 본당에서 드리며 교육1국 어린이들과 사랑부원들이 준비한 찬양으로 주님 나심을 찬양합니다.
성탄축하감사 예배: 오전11시 본당에서 드리며 성탄감사헌금을 드립니다.
- 의료 상담 / 이번주 상담은 정철웅(외과), 이종욱(진검) 주일 오전 10시10분 - 오전11시까지
다음주 상담은 최용준(한방), 오병호(피부과)입니다.
1층 서적부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8993-5558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면에서 계속
13.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310호) ※ 전화 예약 010-2376-3892
◆ 장 례
1.故 이준수 집사 (11교구 이경희 권사의 부군) / 12월20일(수) 별세, 22일(금) 천국환송예배
2.故 성순득 집사 (16교구 이길자 권사의 모친, 방덕선 장로의 장모) / 12월20일(수) 별세, 23일(토) 발인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912명	337명	285명	1,534명	140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12/17)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12월 17일	현금	42,158,500	
"	특별예배비		1,000,000
	찬양운영비		580,000
"	교회학교운영비		162,000
	선 교 비		31,962,470
"	구 제 비		3,250,000
	경 조 비		70,000
	비전2020		8,720,000
"	출 판 비		270,000
	지원교회		5,400,000
	인 건 비		11,044,000
	소모품비		285,000
	교통통신비		1,348,200
	차량유지비		2,619,330
	복리후생비,예수금		1,234,410
	수도광열비		158,400
"	환경유지비		140,000
	수선유지비		965,500
	잡 비		960,000
	식당운영비		647,820
"	합 계	42,158,500	70,817,130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ES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김현정11	송재근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인	윤주일	그레이스헨드멜	송재일	
III부	임마누엘	임범창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유태왕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오늘 찬양예배에는 교육부서 성탄축하 특별행사로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특별순서를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어예배	예루살렘				특 별 순 서			
수요 I 부								
수요 II 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